

SBS 매거진 8

2000



함께 한 10년, 함께 알 21세기-
디지털 SBS

TV Ch 6 / POWER FM 107.7MHz / LOVE FM 103.5 MHz www.sbs.co.kr

CONTENTS 8

2 0 0 0 S B S M A G A Z I N E



표지설명

끼와 카리스마가 혼합된 안개 속 코스모스같은 김유미. 그녀는 「경찰특공대」에서 다중적인 성격의 킬러, 정단비로 활약 중인데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묘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스타 가능성이 농후한 그녀가 「경찰특공대」를 끝낼 때쯤 어떤 모습일지 자못 궁금해진다. 사진/서창식



SBS 2000년 8월 1일
이제는생명이다

SBS 매거진 2000년 8월호

- 통권 제105호 2000년 8월 1일 발행 월간 비매품 1991년 11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 라-5316
- 발행·편집인 / 송도균 주간 / 송석형 부주간 / 박희설 기획 / 남지혜, 이정숙 사진 / 서창식, 조광희, 김연식
- 발행처 / (주)SBS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전화 786-0792, 369-1114
- 편집·디자인 / 디자인 비, 전화 382-3828 • 스캔 및 출력 / (주)스타트, 전화 2264-2050
- 인쇄인 / 이건호 인쇄 / (주)영은문화사, 전화 2274-9250
- 「SBS 매거진」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주)SBS의 동의 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BS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sbs.co.kr입니다.

- 04 초점 / 「경찰특공대」의 동화와 강주
사랑과 젊음의 영웅본색 · 박석근
- 08 새 프로그램 / 「유직엔터」
/ 「이홍렬의 TV대발견」
/ 「전광렬의 세상 따라잡기」
- 11 새 단장 / 「한밤의 TV연예」
새롭게 조명하는 연예 문화의 현주소
- 12 클로즈업 / 세대 교체하는 「덕이」
새 얼굴로 선보이는 두 자매 · 김진희
- 16 화제의 코너 / 「이의정의 인간게놈프로젝트」
소재 차별화에 성공한 인포테인먼트의 선두주자 · 최병일
- 18 커버스토리 / 김유미
끼와 외모를 겸비한 안개 속 코스모스 · 배국남
- 22 프로그램 정보 / 「이홍렬 쇼」 '쿠킹토크 참참참'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앞치마
- 24 스타예감 / 김래원
강렬한 눈빛이 주는 메시지
- 26 스타예감 / 이효정
8색조를 꿈꾸는 17살 소녀
- 28 프로페셔널 / 박정훈 프로듀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 김정덕
- 30 큐 & 컷 / 「도둑의 딸」 촬영현장을 찾아
장면마다 배어 있는 땀과 열정 · 이지혜
- 34 스튜디오 창
메마른 정신을 푸르름으로... · 김재홍
- 36 라디오 세상
- 38 스페셜 스페이스 / SBS 뉴스텍 레이싱팀
한국 모터스포츠를 싣고 달린다 · 박승원
- 40 제작후기 / 「그것이 알고싶다」 AIDS 특집
AIDS, 피할 수 없는 천형인가? · 남상문
- 43 클릭! 인터넷
- 46 TV 및 라디오 편성표
- 50 이달의 SBS 영화 특급
- 51 이제는 생명이다 · 박두선





드라마 「경찰특공대」는 한마디로 영웅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의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다. 약하고 왜소한 현 시대의 젊은이들은 조국이나 민족이라는 말에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이 드라마의 작은 영웅들은 진정한 동료애와 희생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경찰특공대」는 이동하(김석훈 분)와 유강주(이종원 분), 두 인물을 중심 축으로 일과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그리고 있다.

동하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7살 터울의 형 동식(천호진 분)의 보호를 받으며 컴퓨터 공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수재다.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기업의 지원으로 MIT로의 유학을 앞두던 어느

초점 | 「경찰특공대」의 동하와 강주

사랑과 젊음의

날 형이 테러단에게 무참히 죽어가던 모습을 힘없이 지켜보게 된다. 형의 복수를 위해 경찰특공대에 지원, 역경을 이겨내고 인정받는 경찰대원으로 거듭나는 인물 설정이다. 동하가 마음의 문을 열고 동료들과 우정을 나누며 특공대원으로서의 굳은 의지를 보여줄 때면 이 사회에 분명 진정한 영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세호 감독과는 「홍길동」으로 만나 「경찰특공대」에서 지덕체를 겸비한 특공전사로 거듭날 김석훈. 그는 이 드라마를 위해 지난해 10월 특공대에 입소해 직접 훈련을 받았고, 눈 덮인 설원에서 있었던 혹독한 훈련도 이겨내며 동하에 동체가 되고 있다.

반면 유강주는 홀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

음이 따뜻한 사나이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특공대원이 되었고, 같은 조였던 동식을 친형처럼 따른다. 뛰어난 운동신경과 관찰력에 동물적인 감각까지 갖추고 있어 유망한 특공대원으로 주목받다가 부산 모 호텔에서 테러를 진압하다 여경을 죽게 하면서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신의 아버지가 킬러라는 사실을 알고 강주가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갈지 또한 시청자들이 기대할 만하다.

강주의 이종원. 그 역시 「홍길동」을 통해 정세호 감독과 김석훈과의 인연을 만들었고 「청춘의 덫」을 통해 연기의 혼을 불살랐던 배우다. 김석훈과 함께 실제 훈련을 받고 경찰특공대의 생활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리얼리티를 살리고 있다.

영웅본색

이 두 사람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동식의 죽음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동생인 동하와 특공대 시절 동식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강주가 동식의 죽음을 계기로 특공대에 들어간다. 강주는 과거 동료들이 동계훈련을 하고 있는 태백산으로 가고, 유학을 마치기 위해 공항으로 갔던 동하도 무엇엔가 이끌리듯 방향을 돌려 태백산으로 향한다. 하지만 특공대들로부터 합류를 거절한 동하와 강주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특공대원들을 뒤따라 산에 올랐던 동하는 새벽에 눈발에 쓰러진 채 여성대원 오상희(황인영 분)에게 발견되고, 강주는 나름대로 동계훈련에 돌입한다. 드라마는 강주와 동하가 특공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그린다. 그



것은 이 두 사람이 특공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한편 테러집단은 목적을 위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얼굴 없는 전설적인 킬러 박태형(이덕화 분)은 돈이나 개인적인 원한이 아닌 자신의 신념으로 움직이는 인물이다. 나중에 강주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경악한다. 또 김회장(김무생 분)은 테러집단 배후의 우두머리이자 경제계의 거물로 러시아와의 무역을 밑거름으로 무기밀매를 행한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에 심한 반감과 위기감을 갖고 '창문 없는 방' 모임을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테러를 감행한다. 테러리스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최정학(선우재덕 분)이다. 비범한 책략가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하는 그는 김 회장의 오른팔로 '창문 없는 방' 모

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인물이다.

드라마는 공관원 피살사건이 특공대에게 전해지면서 급류를 탄다. 특공 대장 장대규(길용우 분)는 그 동안 수집하고 분석한 정보를 토대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집단과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몇 차례 나오는 반전은 시청자들을 더욱 흥미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다. 특히 단비라는 인물이 그러하다. 정단비(김유미 분)의 정체는 김회장이 아끼는 테러집단의 킬러이다. 미모와 지략을 갖춘 킬러로서 대담성과 냉혹성을 갖춘 매력적인 인물이다. 길으로는 사진작가 행세를 하지만 내면으로는 냉혹한 킬러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지닌 무서운 여자다. 테러리스트 최정학은 단비를 감정 없는 킬러로 키우지



드라마의 두 축을 이루는 동하와 강주, 이들이 풀어가는 이야기는 이 시대 작은 영웅들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형의 복수를 위해 경찰특공대에 지원, 역경을 이겨내고 인정받는 경찰대원으로 거듭나는 동하와 뛰어난 운동신경과 관찰력에 동물적인 감각까지 갖추고 있어 유망한 특공대원으로 주목받던 강주. 여기에 이들의 사랑이 가미돼 드라마에 재미를 더한다. 특히 이들은 실제 훈련을 받고 경찰특공대의 생활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어 극의 리얼리티를 살리고 있다.



만, 단비는 동하의 순수한 모습에 점차 이끌린다. 단비는 동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정보를 수집하면서 인간적인 번민에 휩싸인다. 그녀는 마침내 동하를 사랑하게 되고, 테러집단은 동하를 살인대상자로 지목한다. 최정학은 동하를 향한 단비의 감정을 눈치채고 단비에게 살인 지령을 내린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킬러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이를 눈치채지 못한 동하는 킬러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과연 킬러 단비는 동하를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여기다 오상희의 강주에 대한 사랑도 재미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던 말괄량이 아가씨 상희에게 강주는 운명이다. 여자로서 인정해주지 않는 강주에게 오기를 느끼면서도 서서히 그를 위해 변해가는 인물이다. 강한 이미지에서 청순하면서 여성성을 회복하는 그녀를 보는 것도 사랑스럽다. 상희가 강주와 강주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갈지도 지켜볼 일이다.

이렇듯 드라마는 경찰특공대와 테러리스트의 대결을 축으로 하면서 이들의 사랑과 동료애, 배신과 갈등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져 있다. 이야기를 따라가는 재미도 솔솔하지만 배역을 맡은 등장 인물들의 연기력도 불만하다. 특공대

대장에 장대규가 있다면 테러집단에는 김회장이 있다. 또 특공대에 백성철(김상중 분)과 이동하, 유강주, 오상희가 있다면 테러리스트에는 박태형과 최정학, 김환(김상경 분), 정단비가 있다. 그밖에 특공대원들로 조일영(남성진 분), 김인수(윤철형 분), 박영철(이상인 분)의 연기력도 볼만하다. 오사범(박근형 분)은 특공대의 살아있는 전설로 대원들의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하다. 특공대원들을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 딸 상희가 어려움에 처해도 나서지 않은 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사려 깊은 인물이다.

「경찰특공대」의 장점은 무엇보다 스피디한 스토리와 장쾌한 영상이다. 고난 속에 피어나는 남녀 요원들의 목숨을 건 사랑과 동지애를 휴머니즘으로 묘사하여 딱딱한 드라마라는 편견을 불식한다. 또한 기존 경찰 소재의 드라마들이 갖는 천편일률적인 진부함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스펙터클한 장면들은 시청자의 시선을 잠시도 떼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대변하고 있는 동하와 강주의 일과 사랑의 행보를 주목해보봐도 좋을 듯 하다. **SBS**

글/ 박석근 · 소설가 사진/서항식

엔돌핀 넘치는 진정한 뮤직쇼



새 프로그램



「뮤직엔터」

기획/김혁, 연출/배성우
수요일 7시 15분 방송

시 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가요 정보 및 각종 차트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 해 주는 신개념 음악 프로그램 「뮤직엔터」.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니스의 정보와 순위를 다룬 새로운 형식의 뮤직 버라이어티 쇼이다. 각종 가요 정보를 최초로 공개하며, 스피드한 진행과 영상으로 시청자를 사로잡는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로 날마다 새로움을 찾는 신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가요 정보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만 볼 수 있는 몇 가지.

첫째, 기존에 방송되고 있는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는 각종 신선한 차트를 소개한다. 최근에 가요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앨범을 소개하고 한 주의 앨범 판매량 등을 낱낱히, 정확하게 공개한다.

둘째, 추억의 인기가요를 만날 수 있다. 10년 전 가장 인기를 끌었던 인기가요 톱 10을 통해 추억의 인기가요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인기 가수들의 당시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셋째, 가요계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가요계 스타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뮤직엔터」가 있다. 「뮤직엔터」는 축각을 세우고 스타들의 사진, 이벤트를 신속하게 취재하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인기 가수들의 모든 것을 담아 방송한다.

마지막으로 「뮤직엔터」는 늘 기분 좋은 소식이 가득하다. 스타들의 밝고 화려한 모습, 최고의 인기가요들이 프로그램 내내 가득하기 때문에 보고나면 즐거워지고 엔돌핀이 넘쳐나는 진정한 뮤직쇼이다. **SBS**



명쾌하고 재미있는 세상사

언뜻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생각, 궁금해 하는 것들, 행동 양식이 참 많이 닮아 있다. 여기에 착안, 해외 비디오에 우리 나라의 경우를 첨가하고 재구성하여 그야말로 세계적인(?) 방송, 「이홍렬의 TV대발견」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이홍렬의 TV대발견」은 누구라도 어느 날 당할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일들과 평소 궁금했던 일 등을 실제 상황으로 아주 명쾌하고 재미있게 알려준다. 또한 세상에 완전 범죄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메디컬 디텍티브'에서는 인체의 놀라운 비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각종 살인 사건을 풀어나가며, CCTV에 비쳐진 인간 심리를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도 마련하고,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해 말할 때는 그때의 상황 분석은 물론 당했을 때 도움이 되는 정보도 한아름 안겨준다.

「이홍렬의 TV대발견」이 중점을 두는 또 한 부분은 스튜디오다. 스튜디오에서는 각 코너에 해당하는 즉흥 이벤트를 벌인다. 예를 들어 미인대회 출전자들이 본선 무대에 서기 전 단시간 내에 몸매를 멋지게 보이기 위한 방법을 폭로하는 아이템을 봤다고 하면, 스튜디오에서는 MC와 패널들이 TV에서 멋지게 보이기 위해 했던 자신만의 비밀을, '고백의 시간'을 통해 직접 토로한다. 또한 격투기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나서는 자신의 신체 중에서 가장 무서운 흥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선택, 그 부분의 파워를 측정해보기도 한다.

여기에 친근한 MC 이홍렬 씨와 예전의 10대 스타 '소방차'의 정원관, 튀는 의상으로 더 유명한 개그맨 홍록기, 밝고 상큼한 김가연, 요즘 한참 급부상 중인 신세대 공효진 등 개성 강한 이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어울려 진행한다. **SBS**

「이홍렬의 TV대발견」
기획/정환식, 연출/정순영, 진행/이홍렬
토요일 6시 50분 방송

삶의 모습을 다루는 부담 없는 창문

새 프로그램



「전광렬의 세상 따라잡기」

기획/홍성주, 연출/최상재, 조동석, 진행/전광렬
8월 5일부터 토, 일요일 밤 8시 30분 방송



모 고등학생들이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며 길거리로 나선 이후 그 학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부산 부일외고 수학여행 참사 후 뒷수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며칠 사이에 여러 사건이 일어났지만 모두 북한에서 보내온 이산가족 명단에 묻혀버렸다.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전 사건들은 역사의 이면에 묻히고 만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접하는 뉴스다. 보도의 특성상 가장 최근의 이슈가 되는 사건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지만 신문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미담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화제거리가 될 수 있다.

「전광렬의 세상 따라잡기」는 세 가지 점에서 세상을 주목한다. 첫째, 뉴스에서 놓치는 이면의 이야기, 혹은 파생되는 현장과 그 후를 추적한다. 둘째, 사건, 인물, 현상에 대해 여러 개의 시각과 관점(sub culture, second level, minority)으로 접근한다. 셋째, 특정한 소재나 주인공으로 상황 이해의 실마리를 풀어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읽을 수 있게 한다.

때로는 만인에게 회자되는 따끈따끈한 뉴스의 현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획성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며 또 때로는 인간미 넘치는 우리네 이야기이기도 하다. 무엇이 됐든 「전광렬의 세상 따라잡기」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보는 하나의 창이 될 것이다.

진행자 전광렬은 이 창을 열어 짓히는 친절한 안내자이다. 해학이 담긴 진행자의 깔끔한 한마디가 일주일의 피로를 말끔히 잊을 수 있도록 촌철살인의 재미를 준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요즘 시대에 「전광렬의 세상 따라잡기」는 그래도 다잡아야 하는 삶의 모습을 다루는 부담 없는 창문이고 싶다. **SBS**

새롭게 조명하는 연예 문화의 현주소



지난 5년여간 특종 취재와 빠르고 정확한 보도, 참신한 구성과 기획, 전문화된 리포트 기
용 등으로 꾸준한 인기를 확보하고 있는 「한밤의 TV연예」가 또 다른 변화를 꿈꾼다.
방송 시간을 늘려 8월 초부터 매주 수, 목요일 이틀간 「한밤의 TV연예」를 볼 수 있게 된 것.

방송시간의 변화에 따라 톱스타 위주의 뉴스 전달에서 폭을 넓혀 연예 전반적인 분야를 다
루며 심층적인 기획물의 발굴로 연예 문화의 현주소를 그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제작팀은 밝히
고 있다. 또한 이틀이라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어 사건의 후속 기사도 다룰 계획.

방송 초기부터 지향해온 차별화 전략으로 수요일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스피드한 진행의
화제성 뉴스가 주를 이룬다면 목요일에는 연예계의 심도 있는 기획물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새로이 선보일 '이승연의 인물탐구'는 스타를 만나서 그 스타의 단골집이나 자택 등에서 허심
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코너로 오랜만에 이승연의 입담을 즐길 수 있다. '연예계 마당발'로 자
타가 공인하는 이승연의 개인기가 그대로 묻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여지지 않았던 스
타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스타 다큐'도 마련한다.

「한밤의 TV연예」는 첨단 뉴미디어시대에 편승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 홈페이지
이지(hanbam.sbs.co.kr)를 개설, 현재 활발하게 운용중이다. 이 홈페이지는 인터넷시대에 걸
맞게 영화, 음악, 스타들에 대한 소식을 최고의 동화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한밤의 TV연
예」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많은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SBS**

새 얼굴로 선보이는 두 자매

신지수+이정윤, 김현주+강성연

보고 드라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SBS 주말극장 「덕이」가 30회(7월 30일 방송)를 기점으로 새 단장을 했다.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역 배우들이 성인 배우들로 변신한 것. 성숙한 모습의 덕이, 진이로 선보일 배우는 청춘스타 김현주와 강성연으로, 아역배우들이 보여주었던 것 이상으로 진솔한 연기를 펼쳐보일 작정이 라고 한다. 지난 4월 22일 첫방송을 시작으로 거의 다섯 달째 어린 덕이와 진이로 지낸 신지수, 이정윤과 새로 드라마에 투입된 두 여배우를 만나보았다.

시작과 끝, 그 남다른 각오

감쪽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두 아역 배우 신지수와 이정윤. 7월 30



일 마지막 방송을 끝낸 이들에게 심정을 물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굴곡 많은 인생 역정을 겪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당찬 면모를 잃지 않았던 귀덕. 혼신의 힘을 다해 귀덕을 연기했던 신지수는 처음 맡은 큰 역할이 성공적으로 끝나 일단 안심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역할 자체에 정이 들어 섭섭하기도 하다고. “처음에는 역할이 어려워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끝나니 무엇보다도 정들었던 분들과 헤어지게 되는 것도 그렇고, 좀 섭섭해요.”

아망으로 똥똥 뭉쳐 동생 귀덕 몫의 행복을 혼자 독차지하는 악역, 귀진으로 열연했던 아역 탤런트 출신의 이정윤. 그녀는 이번 역할로 아역 탤런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기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다시 이런 역할을 맡게 될지 걱정이예요. 자기밖에 생각

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이지만, 알고 보면 너무 외로운 사람이 바로 귀진이거든요.” 특히 이정은은 자신이 좋아하는 강성연 언니가 자신의 뒤를 이어 연기한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고.

새로운 전환점에 선 덕이와 진이

떠나는 마음에 섭섭한 두 아역 배우와 달리 새 역할을 맡고 마치 드라마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가슴 설레인다는 김현주와 강성연. 김현주는 지난 3월 이미 덕이 역에 캐스팅됐다. “참 오래 기다렸어요.” 평소 김현주의 선하면서 의지에 넘치는 눈빛을 눈여겨 보아 왔던 장형일 프로듀서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그녀에게 러브 콜을 보냈는데 김현주 역시 작품 섭외가 들어왔을 당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응했다고 한다. “장형일 프로듀서와 이희우 작가 선생님이 연출과 극본을 맡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믿음이 갔어요. 「형제의 강」을 인상깊게 보았거든요.”

반면 강성연은 귀진 역을 제의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다고. 시놉시스에는 애매하게 ‘친성이 악하다’라고만 적혀있는데 이를 어떻게 연기해야 하나 하는 걱정과 연기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한다. “귀진이 역을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되더군요. 이 역은 제 역이란 생각이 들어 결정했습니다.” 부담스러운 만큼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두 사람은 입을 모아 아역들의 배역을 이어서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안하고 부담스럽다고 한다. “워낙 아역배우들이 인기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투입된 후 시청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이다. 김현주의 경우 몇 달째 사투리를 연습하며 이번 드라마를 기다려왔고, 강성연은 「덕이」를 빠지지 않고 모니터 하면서 악역이라고 해서 못되게 연기한다기 보다는 감성에 충실하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귀진의 삶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그렇다면 앞으로 성인 '덕이'와 '진이'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장형일 프로듀서에게 살짝 들어보았다. “드라마 끝까지 귀덕과 귀진의 인생은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지요.” 뒤엉킨 삶 속에서 귀덕은 여전히 절망하지 않고 끈뭇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귀진은 귀덕 몫의 행복까지 탐을 내다 불행해지고 만다는데….

실타래 같이 얽힌 귀진과 귀덕

잡초처럼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해가는 의지의 한국 여인상을 김현주는 과연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 “무조건 열심히 해야죠.” 특히 김현주는 자신이 오히려 귀진 역할에 맞지 않는다는 주위 몇몇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한다. “이번 역할을 통해 모든 분들에게 연기 잘하는 배우로서의 인상을 확실히 심어드리겠어요.”

성인이 된 두 사람은 연적이 되기도 한다. 군수의 조카인 세브란스 의대생 임지석 (박종철 분)을 두고 삼각관계에 놓이는 것. 귀진이 음모를 꾸며 귀덕의 유년의 삶을 훔쳤듯이 또다시 귀덕의 사랑을 빼앗아간다. 이 귀진을 강성연은 어떻게 연기할 작정일까? “현주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열심히 해야죠.” 시대극에다 악역이 처음이라 이 드라마가 너무 기대된다는 강성연.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드라마에서와 마찬가지로 제 속에서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귀진과 같은 부분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연기 변신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죠.”

「덕이」의 높은 시청률을 놓고 구구한 말들이 오간다. 혹자는 세심하게 배경에 신경을 써서 옛날을 추억할 수 있게 해서 성공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고두심, 이혜숙 등 중견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때문이라고도 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결국 이 드라마의 성패는 귀진과 귀덕의 갈등이 어떻게 심화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현주와 강성연이라는 두 여배우의 어깨에 드라마의 사활이 걸려있는 셈. 그녀들의 선전을 기대해본다. **SBS**



소재 차별화에 성공한 인포테인먼트의 선두주자



현대 사회는 '몸'의 시대라고 할 만하다. 오죽하면 '몸의 사회학'이 연구될 정도로 요즘 세대의 의식구조는 '수지발부'를 단지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근 인터넷교육방송인 (주)다솜씨스쿨과 연세성형외과가 전국의 청소년 1,449명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78퍼센트)의 남녀학생들이 외모가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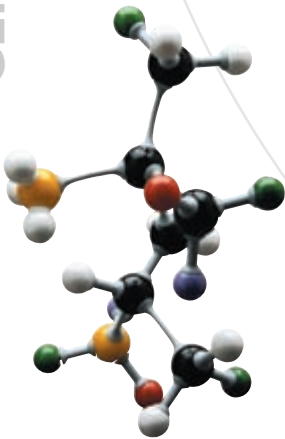
외모 중에서도 가장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은 다름 아닌 키와 다리. 얼굴이나 살은 성형수술 혹은 다이어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키는 '우유'나 '멸치'를 많이 먹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외모에 대한 신화에 덜 집착하는 기성세대에도 "그 사람 다 좋은데 키가 좀..."이라는 말을 즐겨 써왔다. 마치 키가 제2의 장애처럼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다. 키가 작은 이들에게 키는 취업과 결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고 놀란 적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뷰티풀 라이프」의 한 코너인 '이의정의 인간게놈프로젝트'는 다분히 시대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집어낸 프로그램이라고 할 만하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키 크기'라는 본래의 기획의도와는 많이 달라 보인다. 키와 유전학적인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일관성 쌍둥이끼리도 키 차이가 현격한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인간게놈프로젝트라는 다소 현학적인 제목을 붙인 것은 단순한 시선 끌기의 차원은 아닌 것 같다. 키 작은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깨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 적어도 몇 센티미터까지는 키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실증해 보여줬다는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게놈프로젝트'는 인포테인먼트(인포메이션+엔터테인먼트, 오락성이 가미된 정보프로그램)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반영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처음에는 '키'라는 단순한 키워드로 몇 번의 방송 분을 메울 수 있을까? 하는

GENOME PROJECT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소재를 소구하여 저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키를 키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과 운동, 수면, 스트레스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수면주기를 의학적으로 검증하는가 하면, 일본의 여성전문 프로포션 클리닉에서 자세가 키에 미치는 영향까지 보여주는 것은 기존의 정보오락방송과는 확연하게 차별성을 가질 만하다.

특히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진행자인 이의정이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점이 키 크

기에 적지 않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드라마화해서 가족간의 화해까지 이끈 것은 소재 차별화를 이룬 대표적인 성공케이스로 기록될 만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키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나 속설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건강의 문제로까지 진일보하는 일정부분의 성과를 내기도 해서 각광을 받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8년차 감도경 프로듀서가 10분 짜리 코너를 만들기 위해 무려 3일 밤을 지새웠다는 말이 결코 허풍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원초적으로 생각할 때 이 코너에서 간파하는 것이 있다면 '키가 크다'는 것이 가치의 표준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코너가 키 작은 것이 한이 된 이의정이라는 탤런트의 외모 내지 성장콤플렉스를 풀어주는 한풀이 프로그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피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키 작은 것이 콤플렉스가 아니라 키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편견을 정면 돌파할 수는 없을까? 단순히 이 코너가 인포테인먼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까지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은 무리한 욕심일까? **SBS**



커버스토리

김유미

안개 속 코스모스를 본 적이 있는가. 그 처연한 모습은 차라리 신비이자, 성숙이다. 갓 스물된 여자에게서 시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가느다란 코스모스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김유미다.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SBS 창사 10주년 특별기획「경찰특공대」에서 다중적인 성격의 킬러, 정단비로 안개가 걸히면서 사물의 모습이 뚜렷해지듯 다가올 때까지.





끼와 외모를 겸비한 안개 속 코스모스

그녀는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묘한 마력이 있다. 「경찰특공대」 시사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특공대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눈은 단 한 사람에게 쏠렸다. 시선의 중앙에 선 김유미. 무엇일까? 시선을 집중시킨 이유가. 스무살, 무한한 가능성의 나이이자 실수조차 아름다운 때이다. 그녀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승부사 기질인 끼가 있었다. 그것은 누구나 아무리 발버둥치면서 얻으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다. 끼 뒤에는 매서운 카리스마가 숨어 있다. 끼와 카리스마, 이 두가지 요소가 소문을 듣고 찾아간 오디션에서 죽기살기로 덤벼들게 했고, 정세호 프로듀서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끼와 카리스마가 혼합된 이런 독기는 테러리스트로 복합적인 성격을 표출해야 하는 「경찰특공대」 여주인공 정단비 역의 캐스팅으로 이어졌다. 화장품 광고 두 편 출연이 전부인 그녀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필자를 만났을 때 그녀의 손은 상처투성이였다. 손에 화상을 입고 팔에는 모기에 물린 자국이 선연하다. 연일 야간촬영으로 연기자들이 녹초가 됐건만 김유미의 눈빛은 초롱초롱하다. 그녀는 무한한 가능성의 나이인 스무 살만이 표출할 수 있는 무모함을 발휘한다. 그리고 선언한다. 기회는 단 한 번이라는 생각으로 대본을 읽고 연기한다고. 여기에 덧붙인다. 시청자에게 신인이라 봐달라고 이해를 구하지 않겠다고. 겁이라고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다면적인 연기가 버거울만도 한데 그녀는 내색하지 않는다. 아직은 서툴지만 한치 한치 발전해가는 모습이 역력하기에 그녀는 아름답다.

그녀의 나이 또래 연기자들이 이미지의 조작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 사상누각에 불과한 한때의 인기만에 의지한 채 교만을 부리는 무수한 젊은 신세대 연기자들. 대사의 장단음을 가지고 5시간을 고민했다는 대연기자 이순재의 말을 몸으로 체득하는 연기자는 드물다. 이제 처음 시청자 눈길 앞에선 김유미에게서 그런 진중함을 엿봤다면 과장일까? '스타는 자신의 혼을 보여주지만 신인은 자신의 몸매를 보여준다'는 「스타」의 저자 에드가 모랭의 논리를 반박하려는 노력이 김유미에게서 풍겨나기 때문이다. 단아한 옷차림, 정갈한 자세, 논리적인 말투는 신세대답지 않다. 웃을 때 손으로 살포시 입을 가릴 줄도 안다. 그녀는 이러한 나이답지 않은 어른스러움은 현역 대령인 아버지의 엄한 교육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연기자로 성공했을 때에도 지금처럼 초심(初心)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름다운 연기자로 다가갈 것이다.

그녀는 나름의 연기자론을 갖고 있는 탤런트다. 상당수 연기자들과 두세 시간의 인터뷰를 하고 난 뒤 기사를 쓸 때 황당한 경우가 많다. 상투적인 멘트, 예의상 말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과 2년생인 김유미에게선 그런 황당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녀는 당당하게 말한다. “연기자는 문(文)끼와 색(色)끼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많이 읽고 느끼고, 여성으로서의 섹시함도 드러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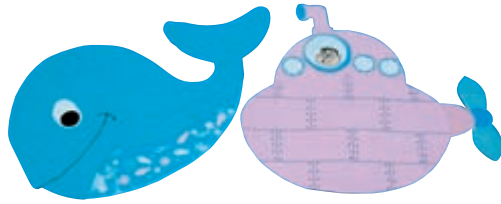
스타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미모다. 주로 얹게 화장한 김유미의 얼굴은 각도에 따라 때로는 신선함과 청순함으로, 때로는 성숙함과 섹시함으로 다가온다. 그녀만큼 다양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연출하는 얼굴도 없다. 긴 얼굴선은 사슴같이 여림을 표출하고 강한 눈빛은 호랑이 같은 강렬함을 연출한다. 양극단의 감정이 동시에 드러나는 외모다.



이제 그녀는 「경찰특공대」에서 테러집단의 1급 킬러 정단비 역으로 연기 인생의 출발선에 섰다. 다중적인 성격이라 그녀는 스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드라마가 끝난 뒤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그녀가 「경찰 특공대」로 인해 대중성(인기)과 연기력을 얻게 된다면 진정한 스타 한 사람이 탄생하는 것이다. 김유미, 그녀는 진정한 스타로서의 중요한 싹인 끼와 외모를 이미 가졌으니까. **SBS**

글/ 배국남 ·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 사진/ 서창식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앞치마



프로그램에서 한 코너가 지속적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정보와 오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어도 몇 년씩 아니 몇 달씩 시청자들의 관심과 출연자들의 호기심을 붙들어매는 것은 어려운 일. 하지만 「이홍렬 쇼」 '쿠킹토크 참참참'에는 그 어려운 일을 쉽게 푸는 열쇠가 있다.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앞치마'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소품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나 이 앞치마의 희소성을 알고 나면 이해가 된다.

「이홍렬 쇼」 제작팀은 오직 한 벌의 앞치마를 위해 2~3시간의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 출연자의 성향과 좋아하는 것 등의 정보를 미리 조사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한다. 초안이 작성되면 이탈리아에 있는 디자이너 김은주 씨에게 보내진다. 방송 특수 소품을 제작했던 경험이 있는 김은주 씨는 제작진과의 친분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앞치마' 만들기에 나선 것. 참고로 김은주 씨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카니발 특수이상제작과 정부 행사 소품을 디자인하는 등 실력 있는 디자이너다.



팩스로 보내졌던 디자인 초안은 독특한 개성과 예쁜 디자인이 담긴 앞치마가 되어 서울로 날아온다.

이렇게 해서, 핸드폰 광고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김민희는 역시 핸드폰 앞치마를 들었다. 김민희는 앞치마를 들면 야광을 배경으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글씨가 새겨지는 폴더를, 이홍렬은 다이얼이 돌아가는 옛날 전화기를 입었다(?).

피자를 좋아하는 이정현은 피자 앞치마를 입었고, 이홍렬은 이정현의 피자를 한 조각 얻어 흰 접시 위에 올려놓았다.

깜찍한 이미지의 강성연이 출연할 당시는 카지노 열풍

이 불고 있던 때, '예쁜' 강성연과 카지노가 만나 카드와 카지노 앞치마가 '예쁘게' 만들어졌다.

또 귀순 배우 김혜영이 출연할 때 (8월 17일 방송 예정)는 맑고 깨끗한 얼굴을 담은 그릇과 후렌치 후라이 앞치마가 각각 선보일 예정이다. 처

음 제작팀의 의도는 귀순 배우에 초점을 맞춰 '평화', '통일' 등으로 디자인 컨셉을 잡았다가 귀순 배우의 이미지를 벗고 싶다는 그녀의 요청에 따라 긴급 수정했다.

방송이 나간 후 참참참의 앞치마를 혼수 용품으로 사고 싶다는 예비신부나 상품화시키자는 사업가의 전화가 쇄도하는 것도 모두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작팀의 아이디어 회의에서 완전한 앞치마가 되어 서울로 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주일. 사실 제작비보다 운송비가 더 든다. 하지만 앞치마 때문에 연예인들이 코너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고 시청자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즐거운 일이 계속되는 한 그 비용은 감수할 계획이다. **SBS**

「이홍렬 쇼」 제작팀은 오직 한 벌의 앞치마를 위해 2~3시간의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 출연자의 성향과 좋아하는 것 등의 정보를 미리 조사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한다. 초안이 작성되면 이탈리아에 있는 디자이너 김은주 씨에게 보내진다. 방송 특수 소품을 제작했던 경험이 있는 김은주 씨는 제작진과의 친분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앞치마' 만들기에 나선 것. 팩스로 보내졌던 디자인 초안은 독특한 개성과 예쁜 디자인이 담긴 앞치마가 되어 서울로 날아온다.



김래원



활달한 합법버저에 티셔츠, 쉽게 말 걸기가 어려운 약관은 차가운 인상, 무엇인가 응시하면서 발생하는 강렬한 눈빛... 정우성, 송승헌 등의 터프기가 계보를 잇는 신세대 스타 김래원, 지금 그가 뜨고 있다. 열화

월혁, 드리머, 「도둑의 딸」에서 도둑 일가의 막내이들로, 한때는 소녀영웅을 들락가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기괴진신해서 경찰이 되겠다고 선언해 집안을 부송송(?)하게 만든 특경 역에 동화된다. 그는 또 영화 「하

피와 「청춘」에 연이여 주인공으로 캐스팅 되면서 신세대 스타의 입지를 굳혔다. 김래원은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응모한 모델 대회에서 수상하면서 열풍을 내밀기 시작, 수많은 CF에 이어 드라마 「나, 「이이거

세, 시트콤 「순정신부인파」 등에 출연하면서 연기수입을 착실하게 쌓았다. 지금같이 하루 24시간을 모두 영화 「청춘」과 「도둑의 딸」을 촬영하면서 비빔개 보내지만, 정작 연기가 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는 많이

강렬한 눈빛이 주는 메시지

할지도 하다. 하지만 후회없는 삶을 살자' 라는 좌우명대로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면 될거라고 생각한다.

남시를 매우 좋아해, 조금만 시간이 되면 친한 친구와 훌쩍 떠나기도 하는 김래원은 농구, 수영, 스노보드 등 못하는 운동도 없다. 중학교 때 농구선수였다는 경력도 가지고 있을 정도. "깊이 있는 연기자가 되고 싶

어요. 정말 김래원은 누구일까라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배우요." 신배 안성기를 존경한다는 그는 안성기처럼 편안하고 일몰에 웃음이 배어 있는 그런 배우가 되는게 꿈이다. N세대 스

타에서 중견 연기자로 거듭나는 김래원을 지켜볼 일이다.

사진/서형석

이효정



이효정이 브라운관 진출의 첫 단추를 조심스럽게 채웠다. 「좋은 친구들」에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코너 페퍼민트 를 통해 신세대 여대생으로 싱싱하게 변신한 것. “정순할하면 누구? 빌빌한 이미지면 누구? 이렇

게 이미지기 고정되는 것보다 애가 이효정 맞아? 여기서 보니 또 틀리네 라는 말을 들은지라 귀지 식칼을 갖춘 배우가 되고 싶어요.” 사실 영화 「춘향전」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어 작품 선정에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정통 드라마보다 가벼운 트렌디 드라마를 선택했고, 페퍼민트 에서 다른 모습의 이효정이 되기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있다. 아직 젊설이 빠지지 않은 17살의 여고생이지만 임권택 감독과 호흡을 맞

팔색조를 꿈꾸는 17살 소녀

춘 터타 연기에 대한 생각도 구체적이다. 영화의 시나리오와 브라운관의 대본의 차이를 조금씩 일만 하된다. 「시운

드 오버 뮤직」의 줄리 앤드루스를 좋아해 그녀와 같은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효정은 언뜻말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 정통 드라마 연기에 도전해 볼 참이다. 수영과 배드민턴 등 운동을 좋아하고 친

구들과 어울려 포켓볼을 즐기는 그녀는 피아노 등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솜씨도 수준급. 시원시원한 성격에 변화하는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이효정. “연기 공부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배우가 되

어야죠. 그리고 아학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앵커도 꼭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깨스금 쏟아지는 신부가 되어 인기를 인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7살 소녀 이효정의 꿈 많은 미래다. SBS 시선/서침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박정훈 프로듀서

최 근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성(性)과 출산 문화에 새로운 인식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 준 박정훈 프로듀서는 현실을 가장 중시하는 리얼리스트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방송은 큰 의미가 없으며 현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방송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다. 그의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함께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게 한 것도 그 동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된 현실적인 문제들을 방송의 소재로 채택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 때문이다.

인간을 되돌아보는 프로그램 제작

지난 1월 방송된 3부작 특집 다큐멘터리 「생명의 기적」의 출발 역시 그의 개인적 경험이 토대가 되었다. 스스로 아빠가 되는 과정,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프로그램 전반에 담아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으며 「탄생」에 대한 의미를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생명의 기적」은 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부터 세상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출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꼬집고 또 다른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출산 문화가 현재의 모습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를 소리없이, 그러나 강한 메시지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출산에 대한 표면적인 모습이나 단순한 정보를 알려주

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 특히 국내 최초로 수중분만 모습까지 직접 카메라에 담아야 했기 때문에 섭외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는가 하면 정확한 시간에 맞춰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는 난감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지만 「생명의 기적」은 방송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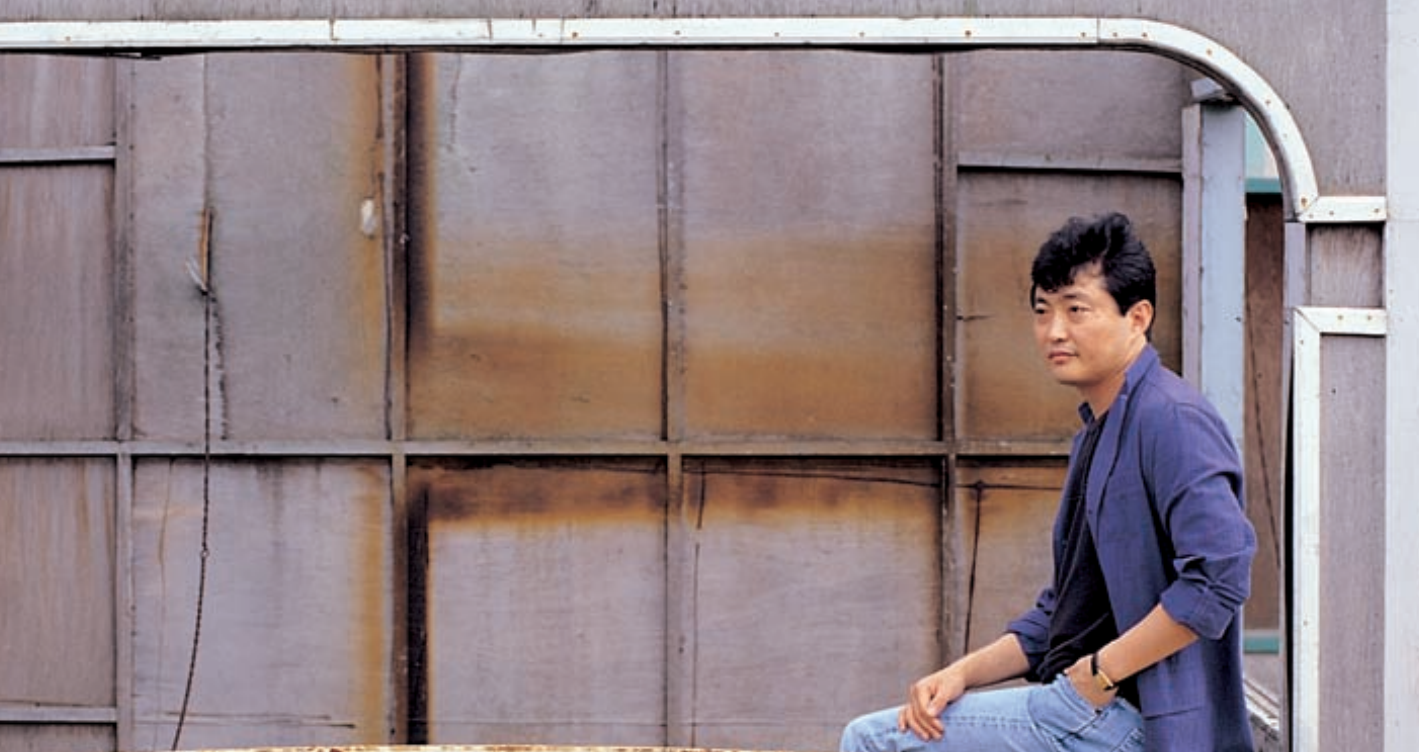
방송의 매력은 메시지 전달

「생명의 기적」을 통해 교양 프로그램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준 박프로듀서는 올해로 15년째 방송에 몸담고 있는 프로페셔널이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88년 MBC에 입사한 그는 지난 91년 SBS로 자리를 옮겨서도 지금까지 줄곧 교양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로 한 길을 걸어왔다.

학창시절 방송에 대해 관심을 두었다거나 방송사 입사를 단 한번도 희망해 보지 않았다는 그는 남들이 몇 년씩 시간을 투자해 준비하는 시험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치러냈다.

그렇게 느닷없이 시작한 방송사의 프로듀서 생활은 그에게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15년이라는 생활이 이어지면서 자신의 자리에 대해 고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를 쫓쫓이 서게 한 것 역시 방송이 가지는 남다른 힘 때문이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수많은 시청자들을 상대로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



히 그 어떤 매체보다도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잠재된 힘이란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매력적인 직업이 또 있을까요?”

특히 교양 프로그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흥미보다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생활에 도움을 주고 또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는 스스로의 자부심 때문이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자신의 작품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평생 소아마비로 고된 삶을 살아간 형을 비롯해 많은 장애자들을 생각해 만든 SBS에서의 그의 첫 작품 「사랑의 정검다리」와 「육체와의 전쟁」, 「생명의 기적」, 그리고 요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름다운 성」을 기획한 것도 모두 이런 맥락에서 출발한 것이다.

당당하게 보여주는 성(性)문화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유교적 관습 때문에 여전히 감추고 숨기는 우리의 성(性) 문화를 당당하게 밖으로 꺼내 놓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성」은 그가 자신의 15년 프로듀서 생활을 전부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모험이었다. 성에 대해 솔직하고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삼류 프로그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 초기부터 많은 반대 의견에 부딪혔지만 결국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책임감으로 방송을 진행시켰다. 단순히 흥미 위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 엄청난 분량의 작업을 거르고 또 거르기를 반복한다. 결국 프로그램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좋은 평가 속에서 매 주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제가 어떤 방송을 할지 그것은 저 자신도 모릅니다. 저는 방송이 꼭 이것이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고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그것을 방송으로 만들고 그 결과 우리의 문화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송일 것입니다.”

15년 방송생활 내내 늘 역동적으로 살아와 위기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그는 지금까지 고수해 온 자신의 생각과 스타일을 여전히 지켜갈 생각이다. 그리고 방송인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모험 또한 즐길 예정이다. 진정한 프로페셔널은 그 무엇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확신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SBS**

글/김정덕 · 자유기고가, 사진/조광희



큐&컷 | 「도둑의 딸」 촬영현장을 찾아

장면마다 배어 있는 땀과 열정



파 리술이 보인다. 그런데도 밍지 않고 정겹다. 산동네 막바지 오르막길 목이나 축이고 가라고 정말로 눈썹 만하게 구멍 뚫어 만든 듯이 보이는 가게. 그 아래 앉아 창만(정원중 분)은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걸까. 빨대로 우유를 빨아먹으면서 말이다. 그 주위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복잡한 장비를 가지고 아스팔트를 녹이는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숨마저 죽인 채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다. 바로 월화 드라마 「도둑의 딸」의 촬영 현장의 모습이다.

시청자들은 브라운관의 화면을 통해 드라마의 완성된 장면을 보게 된다. 그리고는 '재미있다' 라든가 '뉘, 저래' 라고들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편의 드라마, 아니 모든 프로그램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 없이는 제작될 수 없다. 그 땀과 열정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촬영현장이다. 그래서 촬영현장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된다면 그 프로그램에 조금이나마 애정이 가게 될 것이다.

촬영이 시작되었다. 저 언덕 너머 덕경(김래원 분)이 조카 정님의 손을 잡고 등장한다. 덕경의 걷는 속도에 맞춰 암전하게 생긴 엑스트라들도 액션을 취한다. 하지만 간단치 않다. 이 단순한 한 컷이 찍히고 또 다시 찍힌다. 아무 느낌도 없이 단순하게 보아 넘기던 그 많은 드라마의 장면들. 따뜻하고 정겨운 이야기는 치밀함에서 나오나 보다. 치밀하지 않고는 카메라에 진짜 세상을 담을 수 없을 테니까.



한 편의 드라마, 아니 모든 프로그램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 없이는 제작될 수 없다. 그 땀과 열정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촬영현장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 뿐 아니라 엑스트라, 스태프 등 모두가 호흡을 맞춰 한 장면 한 장면 실감나게 살려내고 있다.





골목을 가로 질러 놓여 있던 레일 위로 카메라 이동, 덕경과 정님을 발견한 구멍가게 앞의 창만, 파라솔 앞에 주차해 놓은 차 너머로 얼른 몸을 숨긴다. 그가 몸을 숨기는 동안, 카메라는 자동차 앞에 갈아놓은 레일 위를 부드럽게 달리며 그의 액션을 쫓는다. 비교적 쉽게 오케이 사인이 났다.

다음 장면에서 카메라의 초점은 다시 덕경과 정님에게로 옮겨간다. 누군가 스탠 바이를 외치고, 덕경과 정님이 걷고 있으며 그에 호흡을 맞추는 창만과 엑스트라들. 그러나 NG가 나고 만다. 꼬맹이 정님이 웃어버린 것이다. 뭔가 어색했던 모양이다. 촬영은 다시 시작되고, 그러나 한 번 NG를 낸 정님 대사 까먹고 위치 잘못 잡으며 자꾸 NG 연발. 덕분에 창만은 땀 뻘뻘 흘리며 계속 자동차 너머로 몸 숨기는 장면을 연출한다.

어디서 찾아냈을까. 도둑이 사는 동네. 아무리 홍수가 나도, 서울 시내가 몽땅 물에 잠겨도 끄덕 없을 것 같은 호화 주택가 바로 옆 성북동 산동네.

하늘의 태양도 모자라 세 개나 떠 있는 조명등이 더위를 한층 더 부추긴다. 땀으로 앞머리가 축축히 젖어버린 정님이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 든 덕경에게 묻는다.

“그럼 이 차는 누구네 차야?”

순간 창만 벌떡 일어나 덕경과 정님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몹시 화가 나 있다. 광수(주현 분)의 도둑질을 돕다가 덕경과 그의 이모에게 혼쭐이 난 것이다. 눈에 든 멍

도 그때 생겼다.

“누구네 차는 누구네 차겠냐? 아저씨 차지. 키 내놔.”

창만의 입에서 성난 대사가 불처럼 뿜어져 나온다. 연극 경력이 화려한 그의 실력이 돋보인다.

카메라 위치 바뀌고, 정님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세 사람 차에 올라탄다. 운전석에 앉아 광분하는 창만, 순간 빼격하더니, 감정의 호흡을 잃고 만다. 연기력이 탄탄한 그도 김광수(주현 분)의 환상적인 애드립 앞에서 터지는 웃음은 어쩔 수 없다는 데, 오늘은 어쩔 일로 그만 정님이 앞에서 실수. 창만 미안한 얼굴로 차에서 내리며, 여러 차례 NG를 내 그를 고생시킨 꼬맹이 정님에게 말한다.

“정님이, 미안.”

또 다른 촬영일.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 한다. 안정감 없는 날씨 때문에 마음이 바쁜 스태프들. 암벽 등반 장면을 찍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 먼저 암벽에 오르는 사람은 정반장(설수진 분)이다. 줄에 몸을 감고 올라타는 모습이 한 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밑에서 올려다 보는 장형사(손헌주 분)와의 호흡도 놓치지 않고 챙긴다.

다음으로 오르는 사람은 장형사, 「도둑의 딸」을 통해 처음 암벽 등반을 접하게 된 그가 비장한 얼굴로 암벽을 올라다 본다. 선수들의 지도도 받고, 대본에 새겨진 감정도 다지며 줄을 잡는다. 순간 후두둑 빗줄기가 떨어지자 스태프들 긴장한다. 완벽한 순간을 찾아 카메라를 돌리는 홍창욱



조연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도 애써 급한 마음을 감춘다. 부드러우면서도 꼼꼼하게 배우들을 향해 원하는 것을 잊지 않고 말한다. 다행히 빗줄기가 끊어지기 전에 촬영은 끝났다. 다음 촬영지는 일산 경찰서. 그곳에서 남동 경찰서를 카메라에 담는다.

「도둑의 딸」에 등장하는 세상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까. 하긴 현실적으로 누구나 삶을 꾸려 가기 위해서는 세상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녀야 한다. 인간의 모든 표현과 예술은 역시 삶의 반영인가보다.

SBS라고 새겨진 장비차량을 앞세우고 큰 차 작은 차들이 다투어 일산 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도착하자마자 주차장에 세워진 분장차에 오르는 정반장(설수진 분)과 주형사(송영창 분). 응봉동에서 인공 암벽 타는 장면을 촬영하고 온 정반장, 지쳤을 법한 데 흠뻑 젖은 옷을 갈아입고 싱싱한 건강미가 넘친다. 굵은 화장붓으로 얼굴을 가다듬으며 그녀가 주형사에게 말한다.

“주형사님 대사는 글씨로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털 웃음을 터트린 주형사경상도 어투를 섞어가며 말한다.
 “사투리 때문이거.”

평소에는 전혀 사투리를 쓰지 않는 그가 「도둑의 딸」 사람들과 만나면 저절로 사투리가 나온다. 대사를 살펴보니 역시 놀랄만 하다. “나가 줄 뉘아가 인공 암장이고 오데고 띠꼬 멩간다케서 정소영이 니껴 아이대잇. 니 단디 안챙기

몬 여자라키는 거는 언제 줄 끊고 날아가뻘지 모린대잇.” 한 마디 한 마디 넘어갈 때마다 주형사의 걸쭉한 말투가 살아 있는 듯하다.

스태프들은 경찰서 구내 식당에서 촬영 준비가 한창이다. 기둥에 붙어 있는 ‘공정한 봉사 경찰 구현’이라는 검정 글씨의 표어는 소품이다. 식당 안의 경찰 아저씨들, 여경들, 청원 경찰 등 엑스트라들이 모두 그럴 듯하게 꾸미고 식당 한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 엑스트라들을 배경으로 장형사와 주형사 식탁에 마주 앉는다. 그 잠깐의 틈도 놓치지 않고 대사를 연습하고, 감정도 다진다.

스텐 바이가 외쳐지고, 카메라가 장형사를 잡는다. 장형사를 배경으로 엑스트라들이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서 음식을 챙기는 장면을 연출해 낸다. 이번에는 주형사를 향해 카메라가 위치를 바꾸자, 엑스트라들은 주형사의 배경으로 자리잡고 앉아 식사를 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브라운관으로는 어쩌면 얼굴 한 번 비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대사 한 마디 없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호흡을 맞추며 한 장면, 한 장면을 실감나게 살려낸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완성되고 이들이 모여 다시 편집되고 시청자들은 비로소 「도둑의 딸」을 시청하게 된다. 그 장면마다에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SBS**

글/이지혜 · 시인, 사진/김연식

메마른 정신을 푸르름으로...

● 글/김재홍 · 「시인의 마을」 진행 · 문학평론가 · 경희대 교수

어느새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시인의 마을」의 촌장노릇을 하기 시작한 지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전문 프로그램이 상업방송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심 걱정되기도 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아서라도 우리나라 유일의 시 전문 교양 프로그램인 「시인의 마을」이 살아남아서 오늘날 점점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의 심성을 촉촉이 적셔주고 또 문화 민족으로서 우리 한겨레의 자존심을 계속 살려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한 민족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지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민족혼의 표상인 문화이고 그 핵심으로서 문학이다. 더 좁혀 말한다면 그 문학의 혼인 시인 것이다. 시는 민족의 생존권의 표상이자 주권의 상징이고 혼의 핵심인 말과 글을 갈고 닦아가는 일, 즉 민족어의 완성을 근본 목표이자 이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시를 지키고 시의 나무를 키워 나아가는 일이란 바로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고 주권을 신장시켜가며 민족혼과 정서를 고양시켜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상

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처음부터 이 프로를 맡은 것은 아니었다. 원래는 지금 라디오본부장이 된 유자효 시인이 맡아서 활발하게 진행하던 격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서정주, 김남조, 조병화, 홍윤숙, 김춘수 시인 등 원로시인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많은 시인들을 스튜디오로 초대 하면서 유시인은 프로그램을 원만히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유시인이 라디오센터장을 맡으면서 그간 게스트로 나오던 내가 갑자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것이었다. 언젠가 「불교의 명시」 「이 주일의 시」 등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해 본 경험은 있었지만 그것은 10분 정도의 짧은 것이었다. 이에 비해 「시인의 마을」은 한 시간 정도의 전문적이면서도 본격적인 프로그램이기에 훨씬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었다.

처음엔 얼마나 갈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자신감이 생기고 문단의 이해와 관심도 폭넓게 넓혀져가고 있다. S대학의 권위 있는 비평가 한 분은 일요일 아침 일찍이 이 프로그램을 꼭 듣는다고 말씀하여 등에서 식은 땀이 난 적도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온갖 폭력과 섹스의 범람, 광고와 매체조작으로 해서 나날이 타락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들의 마음은 나날이 황폐해져가고 있으며, 자연환경 또한 점차 파괴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점에서 오늘날 가장 간절한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 시심을 회복하고 시 사랑의 마음을 서로에게 심어주는 일이다.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편성시간대이다. 하필이면 일요일 아침 6시 5분부터 7시까지라 오랜만에 늦잠을 자는 일요일 그 시간에 일부러 일어나려고 하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진행자들도 방송시간을 놓치는 수가 적지 않다. 더구나 밤 늦게까지 있다가 늦잠 자는 버릇에 익숙한 젊은 층이나 신세대들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다. 요즘 범람하는 선정적 프로나 폭력물, 멜로드라마에 빠져들어 있는 청소년들에 시의 마음, 시 사랑의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라도 방송시간대는 좀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만드는 고급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면 그것이 좀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차라리 토요일 심야시간대에 편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온갖 폭력과 섹스의 범람, 광고와 매체조작으로 해서 나날이 타락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들의 마음은 나날이 황폐해져가고 있으며, 자연환경 또한 점차 파괴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점

에서 오늘날 가장 간절한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 시심을 회복하고 시 사랑의 마음을 서로에게 심어주는 일이다.

‘죽는 날까지/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운동주 ‘서시’)라는 구절처럼 진실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찬미하며 선하게 살려는 마음을 간직한다면 어찌 살인과 사기, 폭력 등 각종 범죄가 온 사회에 횡행할 것인가.

그렇다! 이 시대에 시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은 바로 정신의 녹색운동을 전개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공룡도시에 맑은 사랑의 샘물을 흐르게 하는 일이며,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생명사랑·인간사랑·자유사랑으로 열려진 길이다. 어머니를 공경하며 아기를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함께하는 인애의 길이기도 하다. 시의 마음이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마라/너는/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라는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의 정신이기도 한 것이다. **SBS**

라디오 세상

편안하게 떠나는 추억여행

「안문숙 홍기훈의 한판승부」

러브 FM



매일 오후 2시 20분 방송

자 지러지는 웃음과 아련한 추억이 있는 곳. 「안문숙 홍기훈의 한판승부」의 '문숙 엄니 소시적에'가 청취자들에게 화자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문숙 엄니 소시적에'는 매주 목요일(2부) 진행자 안문숙의 어머니 강성임 여사가 옛날 추억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코너다. 어릴 적 소꿉장난 이야기, 친구 이야기, 군것질 이야기 등 20~30년 전으로의 추억여행을 통해 시대를 공감하고 '맞아 맞아'를 연발할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이다.

입담이 좋은 강여사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듣는 옛이야기는 우리네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때를 회상하게 한다.

돌발 멘트로 가끔은 제작진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강여사는 말괄량이 안문숙의 어렸을 때 이야기로 박장대소하게도 만들고 청취자의 시연과 고민을 시원스럽게 답해 줘 우리 모두의 푸근한 어머니가 되기도 한다.

추억여행을 함께 떠나고 싶은 청취자라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강여사와 함께할 수 있다.

귀가길 함께가는 동반자

하루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집으로 되돌아가는 무거운 발걸음. 세상 사는 시름을 한아름 안고 어둑해지는 하늘을 올려다 볼 때면 저절로 어깨가 처진다.

이 고달픔을 함께할 동무라도 있었으면 발걸음이 가벼울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허수경의 해피투게더」에 주피수를 맞춰 보자. 「허수경의 해피투게더」가 매일 소개하는 '집으로 가는 길' (6시 45분 방송)은 청취자들을 편안하게 집으로 안내하는 동반자가 되고 있다.

'점심으로 설렁탕을 먹었는데 국물이 진해 고향에서 먹었던 그 맛이 생각나더라', '오늘따라 늙으신 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인다'는 등의 편지사연들을 청취자들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편안한 자리.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허수경의 해피투게더」의 '집으로 가는 길'을 노크해보는 것이 어떨는지. **SBS**

● 매일 오후 6시 방송



파워FM

「허수경의 해피투게더」



SBS 뉴스텍 레이싱팀

한국 모터스포츠를 신고 달린다

자동차 대국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터스포츠에 과감히 뛰어든 SBS 뉴스텍 레이싱팀이 그 성공을 일궈내고 있다.

최근 '금강산 랠리'에서의 종합 우승은 그 성공의 가능성을 검증한 것. SBS 뉴스텍 레이싱팀이 참가해 종합 우승한 금강산 자동차 질주 경기는 통일을 염원하기 위한 것으로 6월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4일까지 나흘 간 계속되었으며, 경기로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후 동해에서 배를 타고 북한 장전항에 도착, 금강산의 구룡연 해금강, 만물상까지 달리는 레이스.

SBS 뉴스텍 레이싱팀의 오병진, 구원희 팀은 2시간 18분 33초로 총 31대 참가 차량을 모두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출전하기 전 "사고 안 내고 살살 타도 우승한다"고 장담했던 오선수는 지난 2월에 열린 스노우레이스에서 우승해 팀에게 첫 우승컵을 안겨주었던 프로레이서로 라



노스 2 CF에서 정우성 대신 '사랑해'를 직접 백사장에 그린 장본인이다.

지난 1월 창단된 SBS 뉴스텍 레이싱팀은 이우승 단장을 필두로 카레이스 경력 8~10년 차 프로 선수들이 의기투합하여 온 로드, 오프 로드, 랠리 등 국내 모든 경기

에 참가하여 매년 시상대에 오르고 있다.

온 로드, 랠리, F-3에 출전하는 김정수 선수가 선수 팀장으로 팀을 이끌고 있으며, 온 로드 투어링 A의 양성우 구원희 선수, 원메이커 A에 팜브라운 주한 영국대사부인이, 포물러 1800에 캐나다 교포 조항우 선수가 포진해 있다. 스노우레이스 우승으로 팀에게 첫 우승컵을 안겨주었던 오병진 선수는 오프 로드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정수 팀장은 지난해 창원 국제 F-3 경주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출전해 실력을 과시했었고, 올해 5월에 같은 경기장에서 투어링카 중 최고 클래스인 GT(그랜드투어링)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실력파다.

선수들의 선전을 위해 뒤에서 고생하는 이들이 없으면 레이싱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법. SBS 뉴스택 레이싱팀 5명의 미케닉의 숨은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경주용 차를 정비하는 미케닉이 있기 때문에 레이서가 경주차를 믿고 안심하고 달릴 수 있었다.

레이스가 다가오면 테스트 주행이 계속되고 그럴수록 차를 손봐야 할 곳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나흘씩 밤을 새기 일쑤. 이러한 미케닉의 노력이 없다면 완전한 경기는 없다. 박상우 씨 등 5명의 미케닉은 오늘도 스피드와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더 나아가, 수석 미케닉 김상범 씨는 한국 자동차가 외국 자동차와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목표이자 희망이다.

한편, SBS 뉴스택 레이싱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마케팅이다. 지난 금강산 랠리에서도 「SBS 8 뉴스」로고를 타이틀 스폰서 위치에 부착하고 출전하여 대외적인 큰 홍보효과를 보았던 것.

“한국 모터스포츠가 발전하려면 우리 팀이 잘 되어야 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미디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팀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아직은 열악하지만 올해가 지난 10년보다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돌도 맞지 않은 SBS 뉴스택 레이싱팀이 그 동안 거뒀던 성과는 김정수 선수팀장의 말이

과언이 아님을 보여준다.

작은 사고도 있었다. 지난 5월 창원대회에서 투어링 A의 양성우 선수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박살이 나는 대형사고를 경험했다. 결승에서 스타트가 늦는 바람에 느린 차들이 앞서 나갔고 이 차들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190km/h로 코너에 진입하려는 순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체는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파손되었다. 그러나 롤케이지(경주용차 내부의 안전빔)가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시 한번 차량안전규정이 중요함을 절실히 느꼈던 순간이었다. 이렇듯 SBS 뉴스택 레이싱팀은 작은 경험들을 토대로 한 발 한 발 정상으로 다가설 계획이다.

SBS 뉴스택 레이싱팀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앞으로 대외적인 사업들을 통해 이미지 재고에 나설 계획이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등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공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른바 WIN-WIN 전략까지 세웠다.

또한 일반인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동호회 모임과 인터넷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있다. 8월 1일이면 레이싱 뉴스, 자동차 콘텐츠 등에 관한 내용을 SBS 뉴스택 레이싱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SBS 뉴스택 레이싱팀의 선수, 미케닉 그리고 마케팅까지 완벽한 구성원과 이들의 남다른 노력은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SBS**

글/박승원 · SBS 뉴스택 사업팀, 사진/조광희



AIDS, 피할 수 없는 천형인가?

「그것이 알고싶다」 AIDS 특집

아 프리카는 생각보다도 머나먼 곳에 있었다. 늘 지구촌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비행기만 타면 쉽게 어느 나라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서울을 떠나 첫 번째 취재 목적지인 우간다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꼬박 36시간. 비행기만 해도 3번을 갈아탄 후에야 우간다의 관문인 엔테베 공항에 들어설 수 있었다. 엔테베 공항은 과거 이스라엘 특공대의 '엔테베 기습작전'으로 세계에 알려진 곳이다.

적도가 관통하는 우간다와 케냐를 취재하기 전 무더운 날씨가 몹시 걱정이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동부 아프리카 지역은 대부분 해발 1,500미터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 25~6도 정도의 아주 쾌적한 기후였다.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로 들어서면 쉽게 '거리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에이즈로 부모를 잃고 생계를 위해 구걸을 하며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는 아이들이다.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과는 쉽게 구분되는 점이 이들

은 대부분 피죄죄한 차림새에 옷이 반쯤은 찢어져 있고 맨 발로 거리를 다닌다.

미래를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거리로 나와 구걸과 도둑질은 물론 심지어는 마약과 매춘에 빠지기도 한다. 에이즈가 벌써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죽음의 땅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우리는 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나이로비는 치안이 매우 불안한 곳이라 취재를 도와주는 가이드가 차를 타고 다닐 때도 늘 차문을 잠그라고 조언해주었다. 그런데 시내를 지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가 잠시 속도를 늦추었을 때다. 차 뒤쪽에서 갑자기 10대 남자아이가 달려와 운전석의 열린 창문 사이로 가이드의 모자를 낚아채고 유유히 도망갔다.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다. 운전 중이라 뒤쫓아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거리의 아이들은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안경이나 여자의 목걸이 등 돈이 될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채간다고 한다.

빅토리아 호숫가에 위치한 케냐의 키슈무는 말라리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곳이다. 하지만 이제는 말라리아보다는 에이즈가 더욱 창궐해 있다. 100만 명 정도의 인구 중 3분의 1 가량이 HIV(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인 이곳에서 우리는 20대 초반의 한 아기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아프리카의 가난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들이 에이즈 때문에 가난해졌다기보다는 어쩌면 가난 때문에 그 땅에 에이즈가 이토록 만연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에이즈의 합병증으로 흔히 나타나는 카포시 육종 때문에 그녀의 얼굴과 온몸에는 물집이 돋아 있었다. 사실 취재하는 동안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계속 만나긴 했지만 잠복기에는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겉모습도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녀의 이런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 22살의 나이에 벌써 세 아이의 엄마가 된 그녀는 이제 갓 6개월이 지난 아이가 있었다. 부모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태아가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기의 감염여부는 15개월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녀는 배가 고과 청열대는 아이에게 자신의 물집 돋은 젖을 물렸다. 모유를 통해서도 에이즈 바이러스가 전염되므로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워낙 가난한 탓에 분유나 다른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굶어 죽일 수는 없어 어쩔 수 없다고 그녀는 말했다. 정말 비참한 현실이었다. 이는 비단 이 가정만의 비극은 아니었다.

부모를 에이즈로 잃은 후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11살의 어린 나이에 매춘을 해야만 했던 도로서.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자신도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다.

2주 정도의 짧은 취재기간이었지만 우리가 본 아프리카의 가난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들이 에이즈 때문에 가난해졌다기보다는 어쩌면 가난 때문에 그 땅에 에이즈가 이토록 만연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타고난



가난을 이기지 못해 에이즈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매춘을 해야하고, 교육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무지 속에서 에이즈에 무병비로 노출되고 마는 것이다. 지금 현재 전 세계 HIV보균자의 70퍼센트 정도인 2,300만 명이 아프리카 사람이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비극은 비단 아프리카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 후세의 역사가 아프리카에서만 하루에도 6,000명씩 에이즈로 죽어 가는 비극과 과연 그때 동시대를 살아가던 우리들이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는 곰곰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당신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사람들이 AIDS(후천성면역결핍증)라는 병에 대해 갖는 생각은 공포와 무관심으로 크게 나뉜다. 오늘도 병원과 에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이즈 예방단체에는 자신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의심하는 문의전화의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의사에 따르면 이른바

한 자세한 정보도 모른 채 그저 에이즈 환자들을 멀리하고 전염될까봐 호들갑을 떨기만 했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에이즈는 우리의 곁에 다가와 있었다. 평범한 가정에도 에이즈가 이미 침투해 있고, 자신의 보건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보건자들이 타인에게 감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HIV보균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공식적으로 1,173명. 그러나 전문가들은 약 7,0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의 경우가 그랬듯이 이 수치는 언제 급증세를 보일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이즈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정상상태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에이즈에 걸릴 확률

우리나라의 HIV보균자는 지난 6월말 현재 공식적으로 1,173명. 그러나 전문가들은 약 7,0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의 경우가 그랬듯이 이 수치는 언제 급증세를 보일지 아무도 모른다.

'에이즈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오고, 아무리 에이즈 증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알려줘도 2~3일 후 또 자신의 증세를 호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치 에이즈와는 거리가 먼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에이즈에 대해 무관심하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에이즈환자가 보고된 것은 1985년. 이후 90년대 초반 한때 우리 모두는 에이즈 문제로 떠들썩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두려워하듯 에이즈에 대

은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막상 걸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100퍼센트의 가능성이라는 점이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감염경로는 이미 다 알려진 상태이다. 그만큼 예방하기 쉽다는 것이다. 성관계와 수혈(그나마 95년 이후 헌혈된 피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엄마로부터의 수직감염 외에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에이즈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셈이다. **SBS**

글/남상문 ·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듀서



국내 최대의 골프포탈 SBSGOLF.COM 등장

DB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국내 최대의 골프전문 포털서비스 업체가 등장했다.

인터넷 방송의 선두기업인 SBSi(대표 박찬근, 윤석민), 골프전문 케이블 TV인 SBS 골프채널(대표 정승화)과 DB 마케팅과 IT분야의 노하우를 보유한 SK C&C(대표 변재국)가 손잡고 '에스비에스골프닷컴(SBSGOLF.COM 대표 김영기)'을 설립한다. 3사는 이를 위해 이미 99년 11월 전략적 제휴를 맺은바 있다.

SBSGOLF.COM은 '원스톱 골프 서비스 센터'의 기치 아래 크게 Contents, Community, Commerce에 관한 포털 서비스를 DB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여 제공한다.

컨텐츠 서비스는 경기속보/뉴스, 레슨, 룰&에티켓, 경기일정/레코드, 선수 프로파일, 골프장 정보, 검색엔진, VOD 등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SBS가 그 동안 축적해온 골프 컨텐츠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BS골프채널, SBS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가장 방

대한 골프방송 컨텐츠를 디지털화하여 골프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며 동화상 레슨 프로그램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서비스는 이 사이트의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 골프 애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동호회, 게시판, 이메일은 물론이고 개인 성적 관리시스템, 베틀시장, 구인구직 게시판을 제공한다. 특히 골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골프코스별 공략법, 골프 클럽 선택 등을 골퍼들의 체험을 위주로 구성한다. 또한 개인 성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원들의 리운딩 레코드를 관리해 주며, 성적이 우수한 회원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커머스 서비스는 골프 클럽, 어패럴, 가방 등 골프 용품에 관한 제품정보 및 골퍼들을 위한 각종 전문용품 정보를 제공

하고 경매, 회원권 매매, 골프 투어, 골프장 부킹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SBSGOLF.COM은 고객정보 분석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DB 마케팅 기법을 제반 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것은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현하는 것으로 TV, 신문, 카탈로그 등 고전적인 채널은 물론이고 홈페이지, 이메일 등 새로운 채널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약 2,500여 개의 골프를 주제로 한 전문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약 200여 개의 골프 관련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핑몰 위주의 소규모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SBS와 SK그룹이 자본 합작을 통해 '에스비에스골프닷컴'을 설립하여 시장선점에 나서으로써 업계의 주목

을 받고 있다. 이는 국내 최대의 골프 방송 컨텐츠 및 인터넷 방송의 선두주자와 IT 및 DBM 분야의 선두업체가 손을 잡음으로써 가장 최적의 결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의 핵심은 골프 컨텐츠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DB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제1 도약기의 비즈니스 모델이며, 제2 도약기의 비전을 이미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의 골프 DB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멤버십 비즈니스를 전개하며 골프 애호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재테크 컨설팅, 레저, 실버비즈니스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향하는 인터넷 전성기라는 요즘은 골프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이라면 SBSGOLF.COM의 등장은 매우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Buy6.com’ 여름 휴가 대비 상품 풍성



- 여행물, 전세계 호텔 실시간 예약 서비스
- 서적물, 신간서적 30퍼센트 이상 저렴하게 판매
- '경찰특공대 PPL' 오픈
- 오픈 기념 이벤트 진행 중

SBSi 쇼핑몰 'Buy6.com'에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필수 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여행물에서는 세계 전지역 호텔 예약 서비스와 항공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맞춤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호텔 교육 연수 패키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텔페이지(www.hotelpage.com)와도 제휴, 유럽여행 패키지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일반 여행사들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여름 이벤트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SBS 여행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 중 한 명을 추첨하여 일본 도쿄(동경)행 왕복 항공권 2매를 준다.

지난 7월 14일 오픈한 서적물에서는 시중가보다 30~50퍼센트 저렴한 가격에 신간 및 전집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신간 베스트셀러의 경우 서점에 가지 않고도 택배비를 포함해 정가의 30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책을 구입할 수 있고, 어린이 동화 전집의 경우 40퍼센트, 유명 브랜드 대 백과사전은 최고 80퍼센트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외에도 비강스 필수 용품인 자외선 차단 화장품 세트,

카메라, 의류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또한 Buy6.com은 SBS 창사 10주년 특집 「경찰특공대」와 연계해 'PPL쇼핑몰'을 오픈하고 드라마 「경찰특공대」의 스타 소품 및 배경 소품 등을 사전 또는 사후 기획해, 해당 상품을 드라마를 보면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PPL쇼핑몰은 Buy6.com에서 판매, 운영하게 되며, '노출VOD, 3D, 현장사진' 등을 통해 최신 상품 소개와 이미지 구현으로 네티즌이 언제라도 드라마 속의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SBSi, 용인스피드웨이 경기장에서 '여름 카트 스쿨' 개최

여름방학이나 휴가를 이용해 색다른 레저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카트 스쿨에 참여해 보자.

SBSi(대표 박찬근 윤석민)는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국자동차·카트 연맹(회장 나한희)과 공동 주최로 용인 스피드웨이 경기장에서 '여름카트스쿨'을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교 5학년(12세)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SBS홈페이지(www.sbs.co.kr)를 통해 하면 된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첫날은 카트 기본 운전법과 운전자 세, 돌발상황 대처법 등 카트 운전에 관한 기본 지식과 요령을 배우고, 둘째날은 레이싱의 기본 요령에서 스피드 향상 및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교육 후에는 코너 및 직선 추월 등 실제 레이싱 운전 실기 교육을 받고 참가자들간 대회를 펼치게 된다. 대회 성적에 따라 사상을 하고 향후 정기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라이선스 발급할 예정이다.

강사로는 '화이어 버드(Fire bird)'라는 레이싱팀을 이끌었던 김종윤 등 전문 카레이서 5명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외에도 팀별 단체생활을 통해 상호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SBSi의 아이스포츠팀 이상철 팀장은 "마니아들만이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카트는 어린이들도 간단한 조작만으로 쉽게 배울 수 있고, 안전장치를 철저히 해서 사고의 위험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SBSi 카트 스쿨'은 자연과 함께 단체 생활을 즐기며, 자동차 경주의 스릴도 맛볼 수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가 전무한 실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최상의 놀이 문화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참가비는 일일 체험 교실은 5만원, 1박 2일 체험은 9만 3천원이다.(문의: 2001-6739)

SBS라디오 「스위트 뮤직박스」, 한밤의 네티즌 참여 열기

SBS 파워FM 107.7MHz 「스위트 뮤직박스」(매주 월~일, 새벽 1시~3시)가 밤을 잊은 네티즌들을 사로잡고 있다. 「스위트 뮤직박스」는 99년 9월 13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연예인, 초대손님, 선물 등을 배제하고, 인터넷으로 청취자들의 사연이나 신청음악을 받아 100퍼센트 네티즌들이 원하는 음악과 사연만으로 진행하고 있어 타 프로와는 다른 따뜻하고 진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SBS인터넷 홈페이지(www.sbs.co.kr) 라디오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하루 1,000여건의 사연이 올라오고 있으며, 이는 황금시간대에 방송되는 10대 대상의 타 라디오 프로그램에 비해서도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의 김유진 작가는 “방송 진행 도중에도 네티즌들의 사연을 일일이 검토해 즉석에서 소개해 주는 등 라디오 프로그램에 인터넷의 인터랙티브(interactive)요

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며, “네티즌들이 자신이 올린 글이 바로 방송되는 것을 듣고 신기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또 감성이 더 지배하는 새벽 시간대에 올라오는 사연들은 진솔한 내용이 많으며, 청취자들간 공감대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많은 도움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지난 5월에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애청자의 사연이 소개되자 주부와 군인, 학생 등 청취자들이 100여 장의 헌혈증을 보내오기도 했다.

그리고 네티즌들이 신청한 곡들 중에서도 80년대에서 최신곡에 이르는 추억의 노래, 아껴둔 노래, 마니아들이 선호하는 노래 등 새벽 시간대에 어울리는 다양한 음악도 이 프로그램의 인기엔 한 몫을 하고 있다.

「스위트 뮤직박스」의 진행자인 정지영 아나운서는 “청취자들의 따뜻한 사연들을 인터넷을 통해 보고, 방송하는 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라며, “익명 과 실시간 전달이 가능한 인터넷이라는 매개체가 라디오 방송에 또 다른 재미를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SBSi 개국 축하 기념 공개 방송 대성황

SBSi 인터넷 방송 개국 축하 기념 축하쇼가 용인 에버랜드에서 인기 연예인과 수천 명의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뤄졌다. 7월 2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축하쇼는 이지훈, 김효진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정현, 김현정, GOD, 신화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과 관객들의 열기가 어우러져 한밤의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번 공개방송을 겸한 축하공연은 지난 6월 19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SBSi의 인터넷 방송 개국을 기념한 것이다.

SBSi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하루 12시간 편성으로 실시간 방송과 VOD 서비스로 방송의 양적 확대를 기했다. 또한 현재 30~40퍼센트 가량 차지하고 있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네티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인터넷과 공중파가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새로운 장르의 인터랙티브 방송을 선도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SBS**



TELEVISION



SBS

2000년 8월 1일 현재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사랑과 이별
- 9:00 도전! 퀴즈 퀸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SBS 화제작 시리즈
- 12:00 짱이와 깨모
- 12:05 정겨운 우리 가락

PM

- 4:00 마법의 섬 띠또 띠또
- 4:3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 5:50 두꺼비 순찰대
- 6:15 드래곤 볼
- 6:45 행진
- 7:15 엔포 다큐 아는 것이 힘이다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월화드라마 도둑의 딸
- 10:55 이홍렬 쇼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 00:20 스포츠 와이드
- 00:35 SBS 골프



사랑과 이별/월~토 아침 8:50



도둑의 딸/월~화요일 밤 9:55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사랑과 이별
- 9:00 도전! 퀴즈 퀸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SBS 화제작 시리즈
- 12:00 짱이와 깨모
- 12:05 정겨운 우리 가락

PM

- 4:00 마법의 섬 띠또 띠또
- 4:30 신기한 동물나라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 5:50 두꺼비 순찰대
- 6:15 드래곤 볼
- 6:45 행진
- 7:15 서세원의 좋은세상 만들기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월화드라마 도둑의 딸
- 10:55 오늘과 내일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 00:20 스포츠 와이드
- 00:35 SBS 스포츠 프로야구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사랑과 이별
- 9:00 도전! 퀴즈 퀸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SBS 화제작 시리즈
- 12:00 짱이와 깨모
- 12:05 정겨운 우리 가락



경찰특공대/수~목요일 밤 9:55

PM

- 4:00 마법의 섬 띠또 띠또
- 4:30 신기한 동물나라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 5:50 빅토리 구슬동자
- 6:15 포켓 몬스터
- 6:45 행진
- 7:15 뮤직엔터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경찰특공대
- 10:55 김혜수 플러스 유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 00:20 스포츠 와이드
- 00:35 SBS 스포츠 가자 월드컵으로

Thursday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사랑과 이별
- 9:00 도전! 퀴즈 퀸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실속 TV! 시선 집중
- 12:00 짱이와 깨모
- 12:05 정겨운 우리 가락

PM

- 4:00 마법의 섬 떠도 떠도
- 4:30 신기한 동물나라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 5:50 빅토리 구슬동자
- 6:15 포켓 몬스터
- 6:45 행진
- 7:15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경찰특공대
- 10:55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 00:20 스포츠 와이드
- 00:35 올림픽 특집 SBS 스포츠
시드니로 가는 길



생방송 한밤의 TV연예/목요일 밤 10:55

Friday



트랙시티/금요일 저녁 6:15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사랑과 이별
- 9:00 도전! 퀴즈 퀸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금요 컬처클럽
- 12:00 짱이와 깨모
- 12:05 정겨운 우리 가락

PM

- 4:00 춤추는 젤라비
- 4:30 신기한 동물나라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 5:50 카드캡터 체리
- 6:15 트랙시티
- 6:45 행진
- 7:15 이경실, 이성미의 진실게임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기분 좋은 밤
- 10:55 영화특급

AM

- 00:35 SBS 나이트라인
- 00:50 스포츠 와이드
- 01:00 올림픽 특집 SBS 스포츠
시드니로 가는 길

Saturday

AM

- 6:00 토요일집
-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사랑과 이별
- 9:00 토요일 스타클럽
- 10:00 생방송 행복찾기(1부)
- 11:00 생방송 행복찾기(2부)



덕이/토~일요일 밤 8:50

PM

- 12:00 SBS 뉴스
- 12:10 열린 TV 시청자세상
- 1:1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 4:40 SBS 뉴스
- 4:50 순풍 산부인과 스페셜
- 5:40 기쁜 우리 토요일
- 6:50 이홍렬의 TV대발견
- 8:00 SBS 8 뉴스
- 8:30 전광렬의 세상 따라잡기
- 8:50 SBS 창사10주년 특별기획 덕이
- 9:50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
- 10:50 그것이 알고싶다
- 11:50 토요일 스페셜 아름다운 성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 00:20 스포츠 와이드
- 00:35 SBS 골프

Sunday

AM

- 6:00 일요특집
-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1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00 오늘과 내일
- 8:50 일요아침드라마 좋아 좋아
- 9:50 러브게임
- 10:50 좋은 친구들

PM

- 12:00 SBS 뉴스
- 12:10 접속! 무비 월드
- 1:0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 4:40 SBS 뉴스
- 4:50 생방송 SBS 인기가요
- 5:40 호기심 천국
- 6:50 뷰티풀 라이프
- 8:00 SBS 8 뉴스
- 8:30 전광렬의 세상 따라잡기
- 8:50 SBS 창사10주년 특별기획 덕이
- 9:50 일요드라마 카이스트
- 10:50 남희석의 토크콘서트 색다른 밤

AM

- 00:00 SBS 나이트라인
- 00:10 스포츠 와이드
- 00:20 생방송 토커넷 쇼



러브게임/일요일 아침 9:50

Σ Λ LOVE FM 103.5MHz AM 792KHz

S B S

2000년 8월 1일 현재

AM

- 5:00 뉴스
- 5:05 유명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
- 6:05 굿모닝 일본어
- 6:30 봉두원의 SBS 전망대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봉두원의 SBS 전망대
- 8:30 노성태의 경제레이다
- 8:40 새 천년 명의에게 듣는다
- 8:55 공항정보
- 9:05 아름다운 세상 손숙·배기원입니다
- 11:05 김천식의 세상 속으로

PM

- 12:00 낮 종합뉴스
- 12:20 정선희·김진수의 OH! HAPPY DAY
- 2:00 SBS 뉴스라인
- 2:20 안문숙, 홍기훈의 한판 승부
- 4:05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 5:05 문인숙의 노래 세상
- 6:30 이성미, 지식진의 라디오 데이트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김민선의 나는 1035다
- 10:05 고수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 00:00 김진표의 야간비행
- 1:00 Music Topia
- 4:00 쿵짝! 노래는 트롯트

AM

- 5:00 뉴스
- 5:05 유명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
- 6:05 김재홍의 시인의 마을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SBS 일본어 첫걸음
- 8:05 조경철의 자동차 25시
- 9:05 아름다운 세상 손숙·배기원입니다
- 11:05 김천식의 세상속으로

PM

- 12:00 낮 종합뉴스
- 12:20 정선희·김진수의 OH! HAPPY DAY
- 2:00 SBS 뉴스라인
- 2:20 안문숙, 홍기훈의 한판 승부
- 4:05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 5:05 문인숙의 노래 세상
- 6:30 이성미, 지식진의 라디오 데이트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김민선의 나는 1035다
- 10:05 고수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 00:00 김진표의 야간비행
- 1:00 Music Topia
- 4:00 쿵짝! 노래는 트롯트

쌍무지개 화면 제공한**이원백 씨에게 뉴스제보상 수여**

시청자 이원백 씨가 SBS 보도본부에서 주관하는 뉴스제보상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서울 중랑구 상봉1동에 거주하는 이원백 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의정부에서 촬영한 쌍무지개 화면을 SBS에 제공 「SBS 8 뉴스」에 「쌍무지개도 뺏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다.

SBS는 항상 시청사의 제보와 함께 뉴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제보전화는 369-2000,

369-2162 이다.

SBS 남북방송교류협력실 신설

SBS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이은 화해무드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방송교류협력실'을 마련하였다.

지난 6월 말 마련된 남북방송교류협력실은 남북방송교류 등 통일방송에 대비한 종합적인 연구와 대북지원사업, 북한 관련 자료 수집 등 대북업무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신설되어 본격적으로 가동중이다.

SBS 파워 FM, 「섬머 뮤직 페스티벌」

SBS 파워 FM은 휴가철을 맞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BGM 형식으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한다.

1~4부(오전 7시~9시 방송)는 송연호 프로듀서와 류지현 아나운서가 함께 만들며, 가요와 팝을 선사할 예정이다.

5부~8부(오전 9시~11시 방송)는 오지영 프로듀서가 맡았고, 이 시간에는 윤영미 아나운서가 팝을 총망라해 선보인다.

이어 9부~12부(오후 2시~4시 방송)에서

Monday - Saturday

AM

-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 6:00 박영일의 파워 잉글리쉬
- 7:00 이숙영의 파워 FM
-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 11:00 심혜진의 시네 타운

PM

-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 2:00 박철의 2시 탈출
- 4:00 유영석의 뮤직사이트
- 6:00 허수경의 해피 투게더
-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 10:00 양미라, 김승현의 텐! 텐! 클럽

AM

- 00:00 박소현의 러브게임
- 1:00 스위트 뮤직박스
- 3:00 사운드 오브 뮤직

Monday

AM

-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 6:00 박영일의 파워 잉글리쉬
- 7:00 이숙영의 파워 FM
-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 11:00 심혜진의 시네 타운

PM

-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 2:00 박철의 2시 탈출
- 4:00 유영석의 뮤직사이트
- 6:00 허수경의 해피 투게더
-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 10:00 양미라, 김승현의 텐! 텐! 클럽

AM

- 00:00 박소현의 러브게임
- 1:00 스위트 뮤직박스
- 3:00 사운드 오브 뮤직

월~토요일

- ▶ 05:00~07:00 매시 정각에 뉴스
- ▶ 09: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일요일

- ▶ 05: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Monday

ME

POWER

107.7MHz

SBS

는 김삼일 프로듀서와 윤지영 아나운서가 함께 가요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13부~16부(오후 4시~6시 방송)는 박상도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팝을 소개할 예정이다.

시청자가 직접 만든다

SBS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라마에 반영,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먼저, 8월 4일 첫 방송 될 새 일일 드라마 「자꾸만 보고싶네」(운운일 연출, 박정주 극본)

에서는 드라마 주인공 캐스팅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SBS 홈페이지(www.sbs.co.kr)에 개설된 공지사항, 줄거리, 대본 보기를 참고로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의 캐스팅에 대한 의견과 투표 결과를 토대로 한 것. 당첨자는 8월 1일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며,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

「자꾸만 보고싶네」에서는 앞으로도 매주 시청자 참여 퀴즈를 선보이는 등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일요일 오전 오락 프로그램 「좋은 친구들」의 「페퍼민트」도 시청자와 함께 만든다. 시청자들이 PC 통신, 인터넷, 전화, 팩스, 엽서 등을 통해 스토리 구성안을 제작진에게 보내면 이를 토대로 매회 드라마를 구성한다. 일명 인터랙티브 드라마. 시청자들이 만드는 만큼 반응도 즉각적이다. 벌써 2,000여 건의 의견과 대본이 쇄도하고 있다.

SBS는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cinema

이달의 SBS 영화 특급 | 금요일 밤 10시 55분 방송

슬레이어

원제/VAMPIRES

감독/존 카펜터

주연/제임스 우즈, 다니엘 볼드윈

방송/8월 4일 · 담당PD/김박

부모님이 흡혈귀에게 당한 뒤 슬레이어팀의 대장으로 활동하는 잭 크로우(제임스 우즈 분),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몬토아와 다른 팀원들을 이끌고 멕시코의 뱀파이어 소굴을 소탕한 뒤 파티를 연다. 그러나 그 날 밤 파티에서 모든 팀원들이 죽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잭과 몬토아, 매춘부 카트리나. 하지만 카트리나는 이미 뱀파이어의 두목격인 발렉에게 물린 상태. 때문에 발렉과 정신적인 교감이 가능한 카트리나를 이용해 발렉을 죽이기 위해 그녀를 데리고 가는데...



폭풍속으로

원제/POINT BREAK

감독/캐스린 비글로우

주연/키아누 리브스, 패트릭 스웨이지

방송/8월 11일 · 담당PD/이경숙

보디(패트릭 스웨이지 분)는 파도타기와 스카이 다이빙 등 모험을 만끽할 수 있는 스포츠에 빠져든 몇몇 친구들을 규합하여 파도가 좋은 해변을 찾아 전세계를 여행하는 인물. 그들은 돈이 떨어지면 은행 창구를 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한편 대학시절 전미 최고의 미식 축구 쿼터백이였으며 이제 막 FBI 수사관이 된 자니 유타(키아누 리브스 분)는 그들을 쫓다가 보디의 카리스마에 이끌려 그와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보디 때문에 동료와 사랑하는 사람이 지 않은 유타는 집념으로 보디를 뒤쫓다가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 호주의 해변에서 그를 만나는데...



미니언

원제/THE MINION

감독/장 마르크 피세

주연/돌프 룬드그렌

방송/8월 18일 · 담당PD/김하정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흘 동안 음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또다른 아들인, 즉 자신의 아유를 찾으셨다고 한다. 소위 적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 사탄은 끝없는 지옥의 궁창에 갇히게 되는데, 천 년이 채워지는 마지막 날 그는 잠시 동안 지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리스도는 그 걸 막기 위해 지옥문의 열쇠를 텀플 기사단에게 맡긴다. 한편 새 밀레니엄이 다가오는 20세기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뉴욕의 한 강도에서 텀플 기사단이 악마로부터 지킨 열쇠가 발견되었다. 예루살렘 텀플기사단의 그레고 단장으로부터 그 열쇠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수도승 루카스(돌프 룬드그렌 분)는 뉴욕에 도착, 인디언 출신 고고학자 카렌과 함께 악마의 추종자들, 즉 미니언들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데...

터미네이터 2

원제/TERMINATOR 2(JUDGMENT DAY)

감독/제임스 캐머런

주연/아널드 슈워제너, 린다 해밀턴

방송/8월 25일 · 담당PD/김박

1991년, 로스앤젤레스 뒷골목에 또 다시 터미네이터가 나타난다. 그는 근처 술집의 폭주족 오토바이를 빼앗아 존 코너라는 소년을 찾아나선다. 잠시 후 나타난 T-1000이라는 모델 역시 존을 찾아 나선다. 존 코너는 1984년에 터미네이터의 공격을 피해 가까스로 살아난 세라 코너의 아들이다. 세라는 아들을 군대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중남미의 험한 사내들 사이를 전전하다 경찰에 체포되어 LA 근교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상태. T-1000이 나타나 존을 죽이려는 찰나 터미네이터가 소년을 구해주는데...

잘못된 신념으로 고통 받는 생명

‘**민** 음에 갇힌 아이들’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건넨 제일 많은 말이, 하나님을 믿고 자식의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이 왜 하나같이 배가 나왔냐는 것이다. 정아, 신애의 배가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은 배 나온 아이만 사랑하실까?

1년 이상 불러오는 배, 통통 부은 다리, 그러나 그때까지 정아는 정확한 병명도 모른 상태였다. 정아 부모는 이제까지 아이 다섯을 키우면서도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않고 아이들이 이플 때에도 기도로 다 나왔다는 것이다. 14살 정아, 한참 친구들과 더불어 세상을 알아갈 나이에 1년 가까이 집에 꼼짝 않고 누워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할까? 처음 만난 정아는 학교에 무척 가고 싶다고, 그 말만 했다.

정아 부모의 느낌은 무슨 심각한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져서 이성을 잃은 그런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다. 자식을 무척 사랑하는 우리네 보통의 부모였다. 그러나 그들은 정아가 죽음에 내몰려도 오직 기도만이 정아를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결국 우리는 정아 부모에게 자식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되니 계속 정아의 치료를 거부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압력 끝에 정아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정아 엄마는 정아를 엠블런스에 태우면서 목놓아 울었다. 자신의 신념을 접었다는 상실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늦게 자식의 치료를 시작한 것에 대한 자책감 때문이었을까?

정아 부모는 정아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었다. 그러나 어리석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정아에게 병원이라는 것을 통하여 베풀어짐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길 바란다.

하나님은 배 나온 아이만을 사랑하시진 않는다. 배가 나왔다는 외형적 특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쉬워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싶다.

지금도 부모의 잘못된 신념 때문에 고통 받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의 병이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안 알

려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들의 부모에게 한마디 하고 싶

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이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

코 부모들의 고집스런 방식으로만 사랑하지는

않으신다. 아이는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

문이다. 정아, 신애의 빠른 쾌유를 빈다. **SBS**

클/박두선 ·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듀서

